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17-24절

성도들에게 믿음이란 굉장한 수수께끼입니다. 어떤 때는 확실하게 믿어지고 할렐루야 하며 이제 믿음에 도착했다고 생각하는데 또 다른 때는 의심의 파도에 휩쓸려 심한 마음의 갈등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갈등은 모든 사람들이 체험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염려, 근심, 고통이 다가올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 기도할 때 응답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응답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도 도와 주실 것 같기도 하고 안 도와 주실 것 같기도 하고 알쏭달쏭한 가운데 마음에 갈등을 느끼는 것입니다. 믿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어지는 것 같기도 하니 "믿습니다. 아이구 잘 안 믿어지네." 그것이 오늘 읽은 성경말씀 가운데 귀신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믿으려고 할 때, 마음에 안 믿어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염려 걱정은 소용없는 짓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안 믿어진다고 해서 염려 근심을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는데, 문제가 해결 안 되니 염려 근심을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마음속에 깊이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걱정한다고 키가 작은 사람이 한자나 더 크게 할 수도 없고 내가 염려 근심한다고 머리가 검은 머리를 한 터럭도 희게 하거나 흰머리를 검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염려 근심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염려 근심하므로 우리 자신이 더 파괴될 따름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예수님께서 너희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오늘 근심은 그날에 족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판사판일 바에야 억지로라도 믿어보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걱정해도 해결이 안 되고 염려해도 해결이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걸머질 수도 없고 날 대신 걸머질 자도 없으니 '에라 주님께 맡겨 버리자 이판사판이다. 살려주면 살고 죽으면 죽으리다.' 완전히 마음에 결단을 내리고 주님께 내어 맡겨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벧전 5:7)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맡기면 돌보아 주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크고 작음은 얼마나 맡기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작은 믿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같은 사건에 대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마 17:20)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큰 믿음이 아니라 겨자씨 만한 작은 믿음만 있어도 태산을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12 장 3 절에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믿음을 분량대로 나누어 주셨다고 했습니다. **(롬 12:3)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이 있는데 자꾸 없다고 생각하니 그게 문제입니다. 큰 믿음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언제 큰 믿음을 가지라고 한 것이니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겨자씨는 1-2mm 겨자씨 정도의 믿음은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내가 있다고 확신하고 일어나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짐을 맡기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살아가면 성도 여러분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어야 합니다.

(막 9:23)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나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이 세상에 이보다 더 복된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믿음은 '할 수 있으면 조금만 해달라'가 아니라 하나님은 믿는 자를 위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하나님 하실 수 있으면 조금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밖에 기도 드리지 못합니까? 우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꼭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말할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대로 살지도 못했고 늘 세속적인 생활만 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아프다고 해서 혹은 부모가 아프다고 무슨 염치로 '꼭 낫게 해 주세요' 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그럴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더욱이 기도해서 병이 낫는 것을 잘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일종의 희망사항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낫게 해 주시면 다행입니다만 안 되어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식으로 기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더 담대하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늘 종이 주인의 눈치를 보면서 야단맞지 않으려고 겁을 집어먹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듯이 담대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들을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녀의 가장 큰 특권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모두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병을 낫게 하고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를 담대하게 해야 합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입니다. **(롬**

8:32)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다 같이 (마 7:7)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마 7:8)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마 7:9)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마 7:10)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마 7:11)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믿을 때 여러분에 마음에 배수진을 쳐야 되는 것입니다.

믿을 때 자꾸 뒤를 돌아보면 안돼요. 강을 건넜으면 다리를 불태워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물러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믿었으면 끝까지 믿고 나가야 돼요. 믿다가 안 되면 도망치자. 이것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런 믿음 가졌다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어 버렸습니다. 이런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너 엉터리 믿음을 가졌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예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믿습니다. 그렇게 마음에 각오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믿다가 안 되면 뒤로 도망치고 물러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막 9:24)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 주소서 하더라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니까 하시자 그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으니 도와 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 말씀에 집중하게 된 것입니다. 머리가 산만하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집중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부정적인 것은 보지 말고, 공포를 보지 말고,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군대에서 낙하산을 타는 훈련을 시킬 때 교관이 언제나 군인들 보고 말합니다. "믿을 내다보지 마라. 어지러워서 못 뛰어 내린다. 먼 산을 바라보아라. 비행기 안에서 먼 산을 바라보고 뛰어 내리면 되지 믿을 내려다보면 불안하고 공포에서 무릎이 떨려서 못 뛰어내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안하고 공포가 오는 것을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좌우를 살피고 환경을 살피고 두려움을

바라보고 마음에 떨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 41:10)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히 10:35)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믿음의 담대함에게는 반드시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마음속에 꿈을 꾸십시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했으니 믿음의 큰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엡 3:20)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고 꿈을 꾸고 있으면 불가능이 가능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겨자씨 만한 믿음이 다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잘 되는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꿈같은 소리를 하는 사람이 꿈같은 일을 이룹니다." 성경에도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에게 꿈이 중요한 것입니까? 꿈이 있는 사람은 미래를 기다립니다. 꿈은 미래를 창조하는 재료임과 동시에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꿈이 없는 사람은 미래가 없습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내일이 없기에 지금의 시간을 낭비하고 탕진합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극히 순간적이며 일시적이기에 내일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잃어버리고 방자히 행동하기도 합니다. 꿈은 내일을 향한 소망과 기쁨을 줍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지성보다 중요한 것은 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보다 내일이 올해보다 내년이 항상 더 좋아질 것이라는 꿈을 꾸며 살아야 합니다.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꿈꾸었을 때 실제로 이루어진 것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꿈꾸는 자에게 반드시 기회가 찾아옵니다.

또한 성도 여러분이 믿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꿈으로 바라보고 입술로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것 없어도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으로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나. 못한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나는 된다.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일은 이루어진다. 승리한다. 성공한다. 적극적으로 말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나눔의 시간

1. 염려 걱정으로 인해 믿음이 흔들린 적이 있었던 경험을 나누기 바랍니다.
2. 오늘 말씀에 믿음이 흔들릴 때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는데로 말하시기 바랍니다.
3.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을 믿는다면 당신은 지금 어떤 꿈을 꾸고 있습니까?